

2019년 10월 1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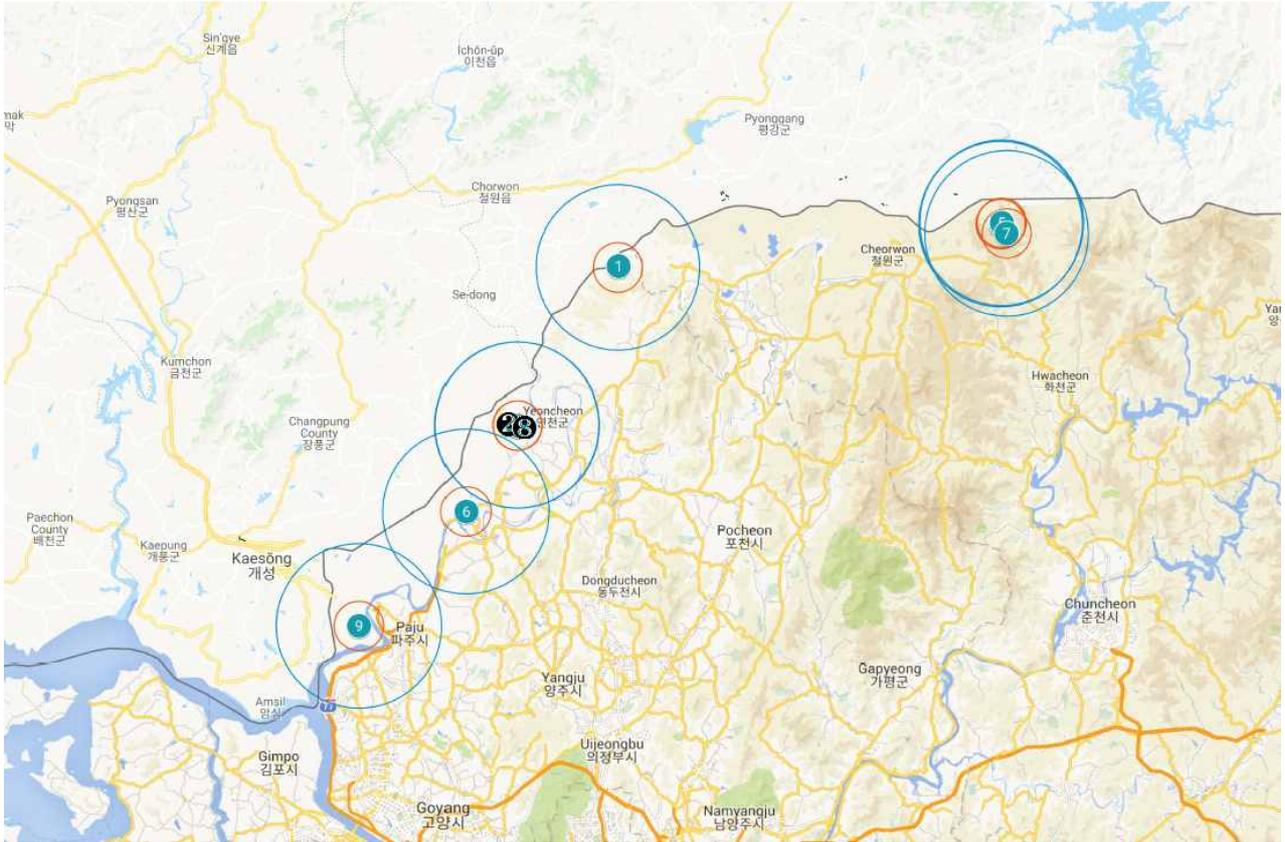
환경부 ASF 총괄대응팀 팀장 박찬용(044-201-7491), 사무관 홍경표(7500) / 제공일:10월 17일(2매)
농림축산식품부 ASF 종합상황반 반장 김상경(044-201-2511), 서기관 정재환(2515)

경기도 연천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의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0월 16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 10월 16일 오전 10시 경 민통선 내 감염지역의 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작업 중 국립생물자원관 직원 및 군인이 발견하여 연천군으로 신고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
- 이번에 검출된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지난 10월 12일 연천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왕징면 강서리(986번지)에서 80여 미터 떨어진 곳이다. 연천군은 시료채취 후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표준 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지점은 기존 검출지점과 인접했고, 감염지역에 대한 차단시설(전기울타리 등)이 10월 17일 끝날 예정”이라며, “해당지역을 포함한 위험지역(약 30km)을 설정하여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지도 및 현장사진. 끝.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지도(연천 이번 검출지역 8번)



폐사체 발견 사진

폐사체 발견 사진